

# '믿을 수 있는 나주 농산물' 나주시,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



## 산지 농·축산물, 가공식품 안정성 공인·인증마크 표시 소비자 신뢰·농가 소득 향상 등 로컬푸드 상생 가치 강화

나주시가 8월부터 로컬푸드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먹거리 안전성을 공인하는 '로컬푸드 인증제'를 전면 시행한다. 나주로컬푸드 인증제는 산지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에 대해 일정한 안전성 기준을 적용하고 인증마크를 출하 상품에 표시하는 제도다.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 6~7월 시범

운영을 거쳤으며 8월 1일부터 나주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 금남점 출하 농산물에 대해 우선 시행 하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성을 공인받은 산지 농산물 공급을 통해 농가는 신뢰와 소득을 얻고 소비자는 신선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나주로컬푸드 상생의 가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

대된다.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신청 전 인증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농산물은 463개 항목 잔류농약검사를 통과해야한다. 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 유기축산, 해설택(HACCP) 인증이 필수다. 가공식품은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원·부재료 함유비율이 50% 이상이어야 인증 받을 수 있다. 나주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안전분석실을 통해 수시 유통 중인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 검출 등 부적합 농가는

인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로컬푸드인 인증제 전면 시행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생산 농가는 소비자 신뢰로 소득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출하 농가 인증제 참여 활성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농업 상생발전을 도모해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나주로컬푸드 출하 농가는 655농가,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 회원수는 1만2743명(2022. 7. 25. 기준)이다. 나주=송준표기자

## 장성군, 야외운동기구 일제 정비 나서

즉시 보수 가능한 시설부터 체계적으로 점검·개선... 점검 책임자 지정도

장성군이 하절기 야외운동기구 일제 정비에 나섰다. 해가 저물어 선선해진 저녁시간을 틈타 주민들의 운동기구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5년간 장성군이 신규 설치한 야외운동기구는 총 111개소 239대다. 보수하거나 필요한 지역으로 옮겨 설치한 경우는 84개소 259대에 이른다. 앞선 6월, 장성군은 시설 점검을 통해 고장난 운동기구 5개소를 보수했다. 또 상반기에만

22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을 새로 설치했다. 군은 8월 중순까지 운동기구별 상태와 활용도를 조사하고, 즉시 개선되는 경우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구분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노후 운동기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안전조치로 주민 여러분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성=김수권기자



## 곡성섬진강기차마을, 더위 타파 시원한 여름에 흠뻑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서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차마을 댄스'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댄스'는 입장권 한 장으로 곡성군의 대표 관광지인 섬진강기차마을을 즐기고 물놀이도 덩으로 즐기자는 의미를 담은 프로그램이다. 한여름에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기차마을에서는 기존 음악분수 돌레에 이벤트 존을 마련하고 7월 마지막 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이벤트를 운영하는 8월 첫 주부터는 본 프로그램으로 오전 11시 신나는 음악과 함께 다양한 물놀이 게임을 펼치는 '섬진강기차마을 수타대전'을 운영한다. 또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버스킹과 마임, 마술 공연을 선보인다. 관광객 참여형으로 진행되는 만큼 물놀이 이벤트를 통해 더위를 식히며 다양한 증정품도 받아볼 수 있다. 곡성=양혜영기자

## 화순군, 농업인 스마트폰 활용 교육 만족도 '업'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농업농촌 전반 다양한 활용 기대



화순군이 지난 7월25일부터 29일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운영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큰 호응을 얻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농장 홍보·마케팅 활용이 가능한 농업인정보교육 스마트폰 활용 과정이 수강생들의 큰 호응 속에 29일

끝났다고 밝혔다. 한국정보진흥원 김인숙 강사를 초빙해 ▲스마트폰 최적화 ▲스마트폰 카메라 활용·촬영·편집하기 ▲Zoom 화상회의 활용 등 실생활과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주제로 강의했다. 한 수강생은 "스마트폰의 기초적인 활용부터 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배울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도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순군 관계자는 "스마트폰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 활용도가 높은 교육이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제공해 역량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화순군 농업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컴퓨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상시 운영하며 농업인의 정보화 역량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농업인정보교육, 각종 영농 교육에 대한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또는 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팀(061-379-5454)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기자

## 구례군, 하계 전지훈련 명소로 각광

7월 한 달간 17팀/5천여 명의 전지훈련팀 구례군 방문

구례군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 하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 끝에, 이번 7월부터 현재까지 17팀, 5천여 명의 전지훈련팀 유치를 달성했다. 특히, 참가팀 중 아시아대회 800m 2연패를 달성했던 전 국가대표 선수 출신 이진일 감독이 이끄는 원주시청 육상팀이 구례군을 찾아와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지난 21일부터 개최된 중등부 축구팀 선수들의 스토브리그전에는 총 6팀, 300여 명이 참가하여, 32도를 넘나드는 더위 속에서도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열띤 경기를 펼치고 있다. 그동안 구례군의 전지훈련 유치 실적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크게 감소하였다. 2019년 연인원 3만 8천 명, 2020년 2만 5천 명, 2021년

7천2백여 명으로, 참가 인원이 눈에 띄는 정도로 줄어드는 추세였다. 하지만, 지난 5월 방역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전지훈련 참가팀이 차츰 늘어나, 2022년 현재 81팀, 1만 8천 명을 넘겨 벌써 예년에 비해 2배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올 한해 약 17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전지훈련팀 유치는 적은 투자로 큰 경제효과가 있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내년 2월까지 있을 동계 기간까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지훈련팀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례=박진호기자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터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